선사부터 조선까지…탁본에 담아낸 염원들

동국대 박물관 '보묵천향' 특별전
'반구대 암각화 탁본' 최초 공개
탁본으로만 만날 유산 면목 확인
'역사 기록물'로 탁본 가치 조명
돈관 스님 "탁본 예술성 느끼길"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 박물관 특별전에 처음 공개되는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탁본. 1971년 동국대 박물관 울산지역 불적조사단에 의해 최초로 발견됐으며, 당시 책임자인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가 건탁 방식으로 탁본을 남겼다. 사진 제공=동국대

탁본(拓本)은 비석이나 기물 등의 각명(刻銘)·문양 등을 먹에 의해서 원형 그대로 종이에 뜨는 방법이다. 중국에서 시작돼 한국에 전해졌고 금석학과 함께 성행했다.

탁본 기술과 금석학은 함께 발전했다. 문자의 점획이나 선 등의 미묘한 부분은 탁본으로 확인하기가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중국은 명비(名碑)의 탁본을 떠서 첩(帖)으로 만들었으며, '법첩(法帖)'이라 하여 서예의 명품 내지 교본으로서 활용했다. 최근까지도 전국의 비석 등 금석문에 대한 탁본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이유도 '역사 기록물'로써 탁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높아서다.

동국대 박물관(관장 임영애)이 3월 26일부터 5월 9일까지 진행하는 특별전 '보묵천향(寶墨天香)-보배로운 먹, 하늘의 향기'는 탁본을 통해 문화유산들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여서 눈길을 끈다.

전시는 총 4부로 구성됐다. 먼저, 전시의 시작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소재한 '석수동 마애종'(경기도 유형문화유산)을 통해 '두드림으로 기록한 역사'를 전한다. 한국 유일 마애종인 '석수동 마애종'은 5m 정도의 정방형 암면을 고르게 다듬고 음각과 양각을 이용해 승려가 두 손으로 당목(撞木)을 잡고 종루에 매달린 범종을 타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마애종 조성 시기를 고려시대 11세기 전·중반으로 보고 있다.

'불심, 탁본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의 1부는 종·광배·탑·비석에 새겨진 조각과 문양 등의 탁본을 통해 불교미술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탁본을 통해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문양들은 별도 관람포인트를 통해 짚어본다.

2부 주제는 '하늘과 땅의 질서를 새기다'로 고승의 업적을 찬탄한 기록,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해 왕조와 개국의 이상을 돌에 새긴 천문도 등의 탁본 기록을 만날 수 있다.

'두드림, 영원히 기억되다' 3부는 사실상 전시의 하이라이트다.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한국미술사연구소장)가 1971년 동국대 박물관 연구원으로 활동 당시 발견한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의 탁본이 최초 공개되어서다.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를 사냥하는 모습부터 인물, 동물 등이 빼곡히 기록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선사 암각화 중 가장 오래된 것이며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고래사냥 그림이다. 현재,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오는 7~8월 경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문명대 명예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석기 시대 역사와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울주 대곡리 암각화다. 멧돼지, 호랑이, 고래 등 육지와 바다 동물 200여 점이 새겨져 있고, 이를 사냥하는 모습도 담겼다"면서 "신석기 시대 문화 예술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유적이 반구대 암각화"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실되거나 북한에 소재해 현재 만나볼 수 없는 문화유산들을 탁본으로 남긴 기록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임영애 동국대 박물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 "동국대 박물관은 1967년 개관 이후 첫 특별전으로 '신라 범종 탁본전'을 개최했다. 이후 60년 만에 다시 특본 특별전을 마련하게 돼 더욱 뜻 깊다"며 "이번 특별전을 통해 종이와 먹으로 이뤄진 탁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채로운 의미와 색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울주 대곡리 암각화' 탁본을 비롯해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탁본 유산들을 대중에게 선보이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전은 탁본이 지닌 예술성뿐만 아니라 역사적 가치를 함께 느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명대 명예교수 인터뷰 13면〉

한국 범종 소리, '다감각'으로 체험한다

국립중앙박물관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 조성

상설전시관 3층에 공간 마련
국보 '성덕대왕신종' 맥놀이
시각 · 청각 등 체험 가능해

국보 '성덕대왕신종' 등 한국의 범종 소리를 시각, 청각 등 다감각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마련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재홍)은 상설전시관 감각전시실 '공간_사이'를 새롭게 조성하고 3월 21일 공개했다.

'공간_사이'는 상설전시관 조각공예관 3층 청자실과 금속공예실 사이에 위치한다. 금속공예실의 주요 전시품이기도 한 한국의 범종 소리를 주제로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시각,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공간_사이'는 2023년에 조성된 '공간 오감'(시각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공감각 전시 학습 공간)과 연결선상에서 기획됐다.

무엇보다 '공간_사이'가 기존의 전시 공간과 차별점을 갖는 것은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여러 감각을 통해 경험해 볼 수 있어서다. 특히 한국 범종을 대표하는 국보 '성덕대왕신종' 소리의 특징인 맥놀이(소리의 강약이 반복되며 길고 은은하게 이어지는 현상)를 시각·청각·촉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새로 조성된 '공간_사이'는 다양한 세대, 국적, 장애 유무, 박물관 경험 정도의 차이 등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한다"면서 "두 개의 전시실 사이 공간이면서 여러 관람객들



국립중앙박물관에 새로 조성된 전시공간 '공간_사이'의 범종 타종 미디어 아트.

사이를 이어주는 의미를 공간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전시 공간 중앙에 폭 4m, 높이 4m의 대형 LED 화면 구조체를 배치해 영상 안에서 〈성덕대왕신종〉의 거대한 존재감을 구현했다. 영상에는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한편 실제 〈성덕대왕신종〉의 종소리에 기반한 미디어아트를 선보인다.

'성덕대왕신종' 맥놀이를 구성하는 저주파수대 소리를 효과적으로 재현할 수 있도록 스피커를 배치해 범종음의 청각 체험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LED 화면 구조체의 뒤편에는 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청음 의자도 마련돼 있다.

'공간_사이'는 한국 범종 소리의 원리를 여러 감각을 통해 경험해 보는 공간이다.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한국어를 기본으로 한국수어, 음성해설, 큰 글씨, 영어 번역과 함께 제시되어 전시실을 찾는 관람객 누구나 불편함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음성해설은 오디오가이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전시 패널에 제시된 내용뿐 아니라 관람에 이해를 돕는 내용을 두루 담았다"면서 "시력에 어려움이 있는 관람객 특히 시각장애인이 공간이 담고 있는 정보와 분위기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가야문화 교류' 국제학술대회 열린다

가야문화진흥원 4월 6일 범어사 선문화관서

제10회 가야문화진흥 국제 학술대회가 4월 6일 오후 1시 부산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개최된다.

가야문화진흥원(이사장 해공 스님)이 주최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가야문화 진흥과 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학술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쿠마르 학장(델리대)이 '파사석탑의 인도 예술적 요소(Indian artistic elements in the Pasa Pagoda complex)'를 주제로 발표하며, 김용준 교수(고려대)가 토론을 맡는다. 이어 △문광희 명예교수(동의대)가 '가야 弁(변)이 우리나라 쓰개문화에 미친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김영재 소장(한산연구소)이 토론자로 나선다. △히로세 연구위원(부산대 박물관)은 '일본에 있는 고대 가야문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오순제 소장(한국고대사연구소)이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능현 스님(아리랑문화진흥원)이 '인도와 가야문에 대한 고찰(언어와 문화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고, 정영도 연구위원(인제대 융복합문화센터)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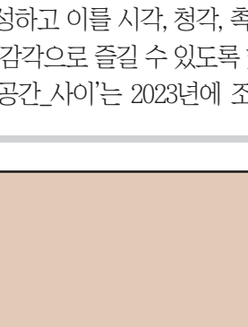
종합토론은 박재석 명예교수(인제대)의 사회로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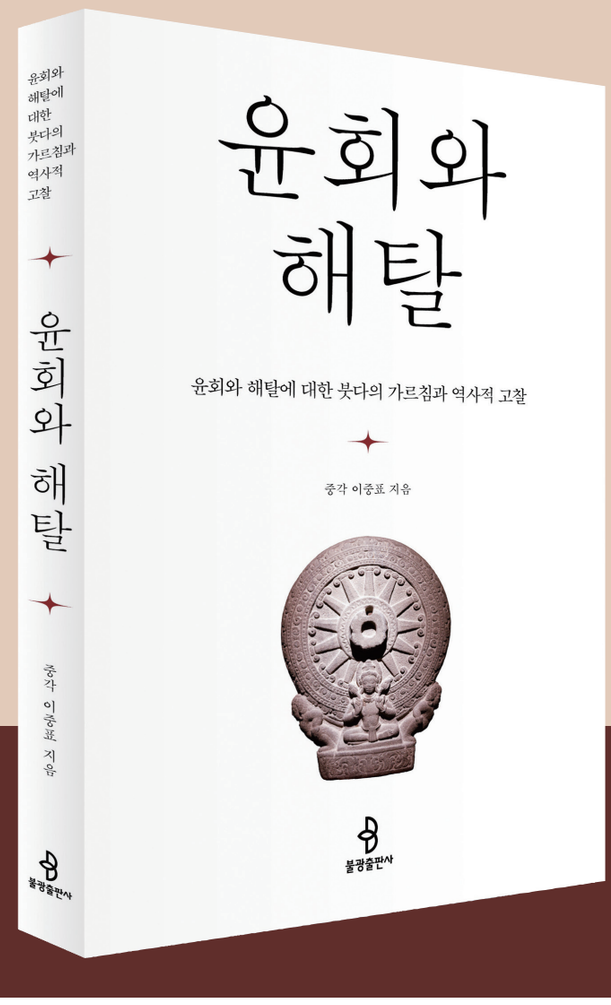
'윤회는 있는가, 없는가'
'윤회는 불교인가, 불교가 아닌가'

윤회에 대한 모든 의문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명쾌한 해설!

한국불교계의 대표 석학이자 수행자,
중각 이중표 교수가 붓다의 직설(直說)인 근본경전을 바탕으로 살핀
붓다가 가르친 '윤회'와 '해탈'의 길



"어떤 이들은 붓다는 당시의 인도인들이 믿는 윤회설을 방편으로 수용했다고 이야기한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붓다 당시의 인도에는 다양한 윤회설이 있었다.
그렇다면 붓다는 어떤 윤회설을 수용했다는 것인가? (……)
붓다도 윤회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윤회설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윤회라는 생각 자체가 연기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사견(邪見)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_본문 중에서



윤회와 해탈에 대한 붓다의 가르침과 역사적 고찰

윤회와 해탈

중각 이중표 지음
224쪽
17,000원

중각 이중표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석학으로서, 현재 불교 신행 단체 '붓다나라'를 설립하여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저서로는 붓다의 가르침을 한 권으로 집약한 한글 경전인 『불경』을 비롯하여 '정선(精選) 니까야 시리즈(전 4권)', 『인간 붓다』, 『붓다의 철학』, 『불교란 무엇인가』,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 등이 있다.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